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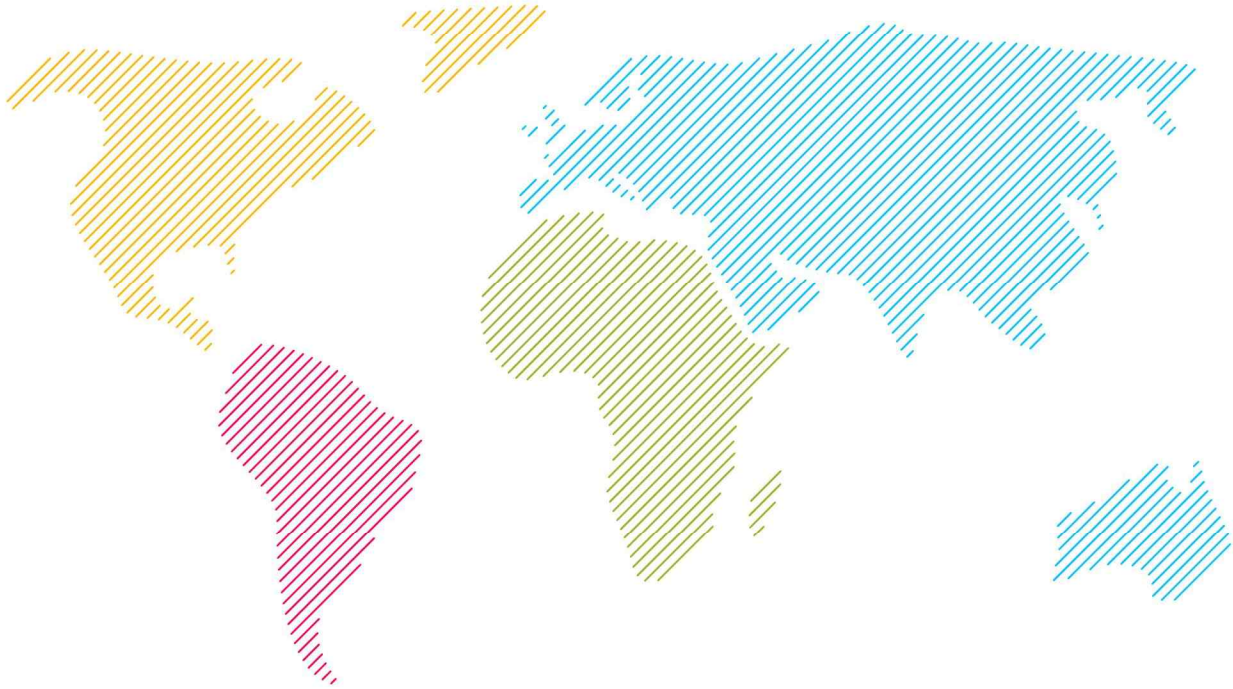
인도 농산물 수출 증가의 대내외 요인과 시사점

김도연 세계지역연구센터 인도남아시아팀 전문연구원
(dykim@kiep.go.kr, 044-414-1257)

인도 농산물 수출 증가의 대내외 요인과 시사점

요약

- ▶ 인도의 농산물 수출은 2019/20년을 기점으로 지속 증가해 2021/22년 전년동기대비 17.7% 증가한 406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 코로나19로 대외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도 인도의 농산물 수출은 2019/20~2021/22년 기간 연평균 21% 성장하였음.
- ▶ 특히 밀과 쌀, 설탕의 수출이 대폭 증가했는데, 2021/22년 인도 곡물 수출은 129억 달러 규모로 전년동기대비 93% 증가했으며, 당류 수출은 51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32% 증가함.
 - 같은 해 기준 인도가 농산물 수출을 가장 많이 한 국가는 방글라데시로, 수출액은 2019/20년 대비 464% 증가한 39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 ▶ 인도 농산물 수출이 증가한 주요 요인은 다른 주요 농산물 수출국의 생산량 감소 및 수출 제한조치로 국제 가격이 상승하자 재고량이 풍부하고 가격이 저렴한 인도 농산물에 대한 대외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임.
 - 세계 다른 주요 농산물 수출국의 생산량이 가뭄, 홍수 등 기상 이변으로 감소했으며, 코로나 19로 인한 공급망 대란으로 식량안보에 대한 우려가 커져 일부 국가의 경우 수출제한 조치를 시행해 교역량이 감소하였음.
 - 반면 인도는 작황 상황이 양호했으며, 2018년에 농산물 수출을 특화한 정책(AEP)을 발표하고 △수출 클러스터 조성 △신제품 개발 등을 추진한 것 또한 농산물 수출이 증가한 요인으로 분석됨.
- ▶ 향후 인도정부는 자국 농산물의 품목을 다양화하고 수출 저변을 확대하는 정책을 지속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주요 농산물의 수급이 불안정해질 경우 자국 식량안보를 강조하며 즉각적인 수출 금지 혹은 제한 조치를 시행할 가능성이 있음.
 - 인도정부는 2022년 5월에는 밀 수출을 금지했으며, 8월에는 밀가루 수출을 금지하였음.
- ▶ 이에 우리나라의 식량 수입처를 다변화하기 위해 인도와의 농산물 교역을 확대할 경우, 주요 작물에 대한 인도정부의 관리 및 수출 환경을 고려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우리 정부는 안정적인 식량 공급을 위하여 자급률 제고와 해외 수입선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상황으로, 인도로부터 당밀, 옥수수, 참깨 등 수입품목이 증가하는 추세임.
 - 우리나라의 발전된 농업기술을 인도의 풍부한 인적자원과 자연환경에 접목시킨 현지 맞춤형 농업 협력을 양국 정부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인도에 한-인도 식품산업 단지를 조성해 장기적인 식량 공급처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음.
 - 식량 수입 의존도가 높은 UAE는 인도 내 식품산업 단지 조성에 20억 달러를 투자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식량 수급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였음.



차 례

1. 서론
2. 인도 농산물 수출 동향
 - 가. 품목별 수출
 - 나. 국가별 수출
 - 다. 주요 수출 품목의 국가별 수출
3. 농산물 수출의 증가 요인
 - 가. 대외적 요인
 - 나. 대내적 요인
4. 요약 및 시사점

참고문헌

1. 서론

■ 인도의 농산물 수출은 2019/20년을 기점으로 지속 증가해 2021/22년 전년동기대비 17.7% 증가한 406억 달러를 기록하였음.¹⁾²⁾

- 코로나19로 대외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도 수출은 지속 증가했으며, 2019/20~2021/22년 기간 연평균 21% 성장하였음.

○ 2021/22년 농산물 수출량은 4,276톤으로 2019/20년(1,827톤) 대비 57% 증가하였음.³⁾

그림 1. 인도의 농산물 수출 동향

(단위: 백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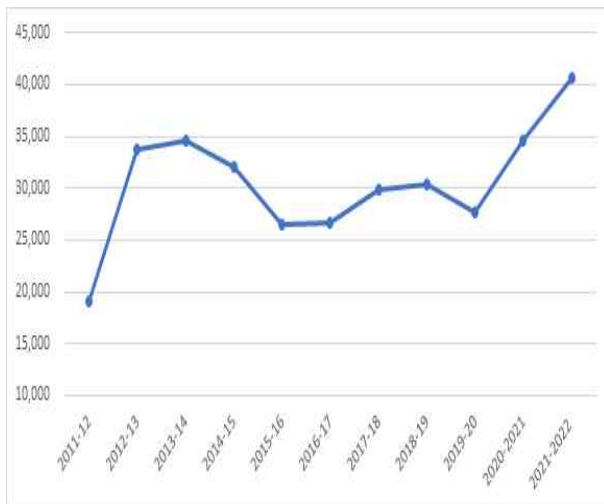


표 1. 2021/22 수출 상위 10개 품목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HS 코드	품목	2019 /20	2021 /22	증가율
1	10	곡물	6,672.4	12,882.0	93.1
2	17	당류 및 설탕과자	2,192.1	5,089.3	132.2
3	09	커피 및 향신료	3,299.3	3,967.0	20.2
4	02	육과 식용설육	3,300.7	3,376.7	2.3
5	12	채유용 종자	1,773.1	1,746.6	-1.5
6	23	조제 사료	1,167.5	1,583.2	35.6
7	15	동식물성 유지	1,165.7	1,547.1	32.7
8	08	과실 및 견과류	1,490.8	1,536.8	3.1
9	07	채소	1,095.6	1,486.9	35.7
10	21	기타의 조제 식료품	834.5	1,109.5	32.9

주: 인도화계연도는 4월에서 이듬해 3월까지를 의미함. 2021/22년은 2021년 4월~2022년 3월을 의미함.
자료: 인도 상공부 통계(검색일: 2022. 8. 16).

주: *HS 2단위 2021/22년 수출액 기준으로 작성함.
자료: 인도 상공부 통계(검색일: 2022. 8. 16).

1) 어패류를 포함한 수출 금액은 500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함. Ministry of Commerce & Industry(2022. 4. 6), "India's Agriculture Exports touch a historic high of USD 50 billion", 온라인 보도자료(검색일: 2022. 8. 5).

2) 본 자료에서 농산물은 HS코드 03(어패류)을 제외한 01(산동물류)에서 24(담배류)까지로 설정하였으며, 수출입에 관한 자료는 인도 상공부 통계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3) 수출량 통계는 인도농가공식품수출청(APEDA)을 활용하였음(검색일: 2022. 8. 16).

- 농산물 수출액 기준 상위 10개 품목은 1)곡물, 2)당류 및 설탕과자, 3)커피 및 향신료, 4)육과 식용설육, 5)채유용 종자, 6)조제 사료, 7)동식물성 유지, 8)과실 및 견과류, 9)채소, 10)기타의 조제식품임.

■ 특히 곡물과 당류의 수출이 대폭 증가했으며, 곡물 중에서 밀은 2021/22년 기준 전년동기대비 273.7% 증가한 21억 달러가 수출되었음.

- 밀 수출량은 2019/20년 21만 톤에서 2021/22년 724만 톤으로 3,348% 급증함.
 - 쌀 수출량은 2021/22년 2만 1,210톤으로 2019/20년 대비 123% 증가했으며, 동기간 옥수수의 수출량도 897% 증가함.
- 2021/22년 인도 당류 수출은 51억 달러 규모로 2019/20년 대비 132% 상승함.

그림 2. 인도 주요 곡물 수출 동향(금액 기준)

(단위: 백만 달러)



주: 밀과 옥수수는 우측, 쌀은 좌측이며, HS코드 4단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자료: 인도 상공부 통계(검색일: 2022. 8. 16).

표 2. 인도 주요 곡물 수출 동향(수출량 기준)

(단위: 천 톤)

년도	쌀	밀	옥수수
2018/19	12,014.3	226.2	1,051.9
2019/20	9,495.4	217.4	370.1
2020/21	17,725.6	2,088.5	2,879.2
2021/22	21,210.4	7,239.4	3,690.5

자료: 인도 농가공식품수출청(APEDA) 통계(검색일: 2022. 8. 16).

■ 최근 인도는 주요 농산물 수출이 성장세를 보이며 세계 식량의 주요 공급처로 언급되고 있음.

- 2019년 인도가 세계 농산물 수출에서 3.1%의 점유율로 9위를 차지했으며, WTO 10대 농산물 수출국에 진입함.⁴⁾
 - 1995년 세계 최대 쌀 수출국은 태국이었으나, 2019년 인도가 전 세계 수출 비중 33%를 기록하며 1위를 차지하였음.
- 2020년 기준 인도는 세계 2위 채소(배추, 마늘 등), 곡물(밀, 쌀)류 생산국이자 세계 5위 대두 생산국임.⁵⁾

4) WTO(2020), p. 7.

5) FAO 통계(검색일: 2022. 8. 16).

- 모디(Modi) 총리는 2022년 4월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오늘날 세계는 불확실한 상황에 직면에 있다며 인도의 비축 식량을 다른 나라에 공급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언급함.⁶⁾
- 지난 5월 13일 인도정부가 밀 수출을 금지⁷⁾하자 국제 밀 가격이 급등했고, 세계 많은 언론 및 기관들이 곡물의 글로벌 공급 충격이 가중될 것으로 보도하면서 인도의 곡물 수출 동향을 예의주시함.⁸⁾
 - 인도의 밀 수출 금지 발표 이후 2022년 5월 16일 시카고상품거래소(CBOT) 기준 밀 선물 가격은 부셸(bu.)당 12.47달러로 약 6% 급등하였음.⁹⁾

■ 이에 본 자료는 2019/20년을 기점으로 2021/22년까지 인도의 농산물 수출이 증가한 배경을 품목 및 국가별 수출 통계를 바탕으로 살펴보고 대내외 요인을 분석해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글상자 1. 인도 농업 거시 지표

■ 2020년 기준 농업은 인도 전체 GDP의 약 18%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인도는 전체 국토의 51%에 해당하는 약 1억 7천만 헥타르의 농경지를 보유하고 있음.

- 인도는 지역별로 다양한 기후대를 보이고 있어 여러 종류의 농작물이 생산되고 있으며, 여름 남서 몬순(Monsoon) 시기의 강수량이 인도 연간 강수량의 약 75%를 차지해 인도 농업생산에 큰 영향을 미침.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농업 GDP(백만 달러) (전체 GDP대비 비중)	439,040 (16.5)	433,324 (16)	473,696 (16.7)	486,291 (18.2)	532,076 (16.8)
농촌인구(천 명) (총 인구대비 비중)	889,216 (66)	893,272 (66)	896,909 (66)	900,099 (66)	902,833 (66)
농업 부문 예산 (백만 달러)	7,487	8,164	9,047	15,860	18,110
경지 면적(천 헥타르) (국토 면적 대비 비중)	168,895 (51.4)	168,778 (51.3)	168,669 (51.3)	168,669 (51.3)	-

주: 경지면적은 경작 적합지(arable land)와 영구경작지(permanent crops)를 합산한 수치임.

자료: 농업 GDP 및 비중은 World Bank 통계(검색일: 2022. 8. 16); 농촌인구, 국토면적, 경지면적은 FAO 통계(검색일: 2022. 8. 16); 원자재(2019), p. 4를 참고하여 작성.

6) Hindustan Times(2022. 4. 12), “‘India ready to supply food stocks to world if WTO permits’: PM Modi,”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2. 8. 15).

7) 인도정부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공급망 교란 등 세계 시장의 급격한 변화로 국제 밀 가격이 급상하자 자국 및 주변국의 식량안보를 고려하여 밀 수출을 금지하였음. Ministry of Commerce & Industry(2022. 5. 13), “Amendment in the Export Policy of Wheat,”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8. 18).

8) S&P Global(2022. 5. 14), “India bans wheat exports, adding to global supply crunch,”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2. 8. 15).

9) 연합뉴스(2022. 5. 14), 「인도 밀 수출금지 촉각…밀 가격 상승으로 국내 식품물가 부담 커질 듯」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2. 8. 15).

2. 인도 농산물 수출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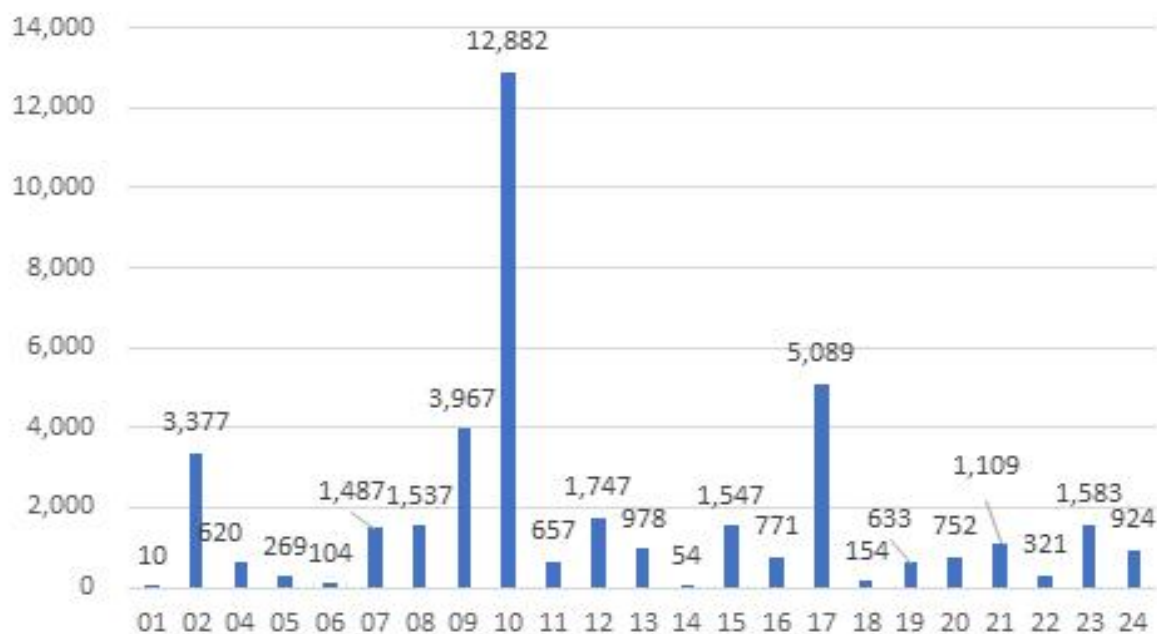
가. 품목별 수출

■ 2021/22년 기준 인도가 가장 많이 수출한 농산물은 곡물과 당류이며, 농산물 전체 수출에서 두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44%임.

- 곡물 수출액은 128억 8,200만 달러로 전체 수출 비중의 31.7%를 차지하며, 당류 수출액은 50억 8,900만 달러로 12.5%를 기록함.
- 곡물과 당류 다음으로 많이 수출한 품목은 커피·향신료와 육류로 각각 40억 달러, 34억 달러 수출액을 기록함.

그림 3. 인도의 2021/22 농산물 수출 현황(HS 2 단위별)

(단위: 백만 달러)



주: HS코드 01: 산동물, 02: 육과살용설육, 04: 낙농품·조란·천연, 05: 기타 동물성 생산물, 06: 산수목·꽃, 07: 채소, 08: 과일·견과류, 09: 커피·향신료, 10: 곡물, 11: 밀가루·전분, 12: 채유용종자·인삼, 13: 식물성엑스, 14: 기타식물성 생산물, 15: 동식물성유지, 16: 육·어류 조제품, 17: 당류 설탕·고자, 18: 코코아·초코렛, 19: 곡물·곡분의주제품과방류, 20: 채소·과일의 조제품, 21: 기타의 조제식품, 22: 음료·주류·식초, 23: 조제사료, 24: 담배
자료: 인도 상공부 통계(검색일: 2022. 8. 16.)

표 3. 인도 농산물 수출 동향(2012/13~2021/22)

(단위: 백만 달러)

HS 코드	12/13	13/14	14/15	15/16	16/17	17/18	18/19	19/20	20/21	21/22	비중		
											12/13	18/19	21/22
1	11	11	13	71	79	64	43	34	9	10	0	0.1	0.0
2	3,287	4,476	4,929	4,210	4,038	4,175	3,723	3,301	3,223	3,377	9.7	12.3	8.3
4	410	705	379	328	293	367	539	354	352	620	1.2	1.8	1.5
5	111	128	100	92	80	122	132	94	97	269	0.3	0.4	0.7
6	78	75	75	74	82	79	82	77	78	104	0.2	0.3	0.3
7	1,037	1,356	1,181	1,261	1,295	1,306	1,302	1,096	1,304	1,487	3.1	4.3	3.7
8	1,412	1,623	1,611	1,585	1,731	1,857	1,617	1,491	1,353	1,537	4.2	5.3	3.8
9	2,743	2,747	2,872	2,955	3,185	3,310	3,200	3,299	3,902	3,967	8.1	10.5	9.8
10	9,655	10,563	9,551	6,272	6,013	8,152	8,160	6,672	10,104	12,882	28.6	26.9	31.8
11	227	299	306	299	218	247	321	335	434	657	0.7	1.1	1.6
12	1,728	1,709	2,214	1,674	1,809	1,647	1,640	1,773	1,821	1,747	5.1	5.4	4.3
13	4,321	2,415	1,948	869	844	1,019	1,057	823	727	978	12.8	3.5	2.4
14	60	59	60	66	68	53	54	47	44	54	0.2	0.2	0.1
15	959	857	973	877	893	1,264	1,098	1,166	1,633	1,547	2.8	3.6	3.8
16	94	120	155	212	317	422	433	480	638	771	0.3	1.4	1.9
17	1,750	1,355	1,075	1,764	1,509	1,019	1,629	2,192	3,150	5,089	5.2	5.4	12.5
18	54	94	139	193	162	177	193	180	150	154	0.2	0.6	0.4
19	407	463	490	506	519	538	535	531	617	633	1.2	1.8	1.6
20	384	450	505	488	494	585	589	624	703	752	1.1	1.9	1.9
21	509	540	588	569	628	726	770	835	933	1,109	1.5	2.5	2.7
22	362	409	378	321	312	347	326	255	355	321	1.1	1.1	0.8
23	3,236	3,048	1,630	803	1,111	1,460	1,915	1,168	2,021	1,583	9.6	6.3	3.9
24	924	1,011	959	982	959	934	981	905	877	924	2.7	3.2	2.3
소계	33,759	34,513	32,129	26,470	26,637	29,869	30,338	27,729	34,523	40,571	100	100	100

자료: 인도 상공부 통계(검색일 2022. 8. 16).

■ 인도의 농산물 수출은 육류, 곡물, 당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최근 5년 평균 수출액은 각각 36억, 92억, 26억으로 전체 농산물 수출액의 약 50%의 비중을 차지함.

- HS 2 단위별 수출 변화를 살펴보면, 2012/13년과 비교해 2021/22년 당류의 수출 비중이 가장 크게 상승했으며, 주력 수출 품목 중 하나인 육류의 수출 비중은 다소 하락함.
 - 2012/13년 당류의 수출 비중은 5.2%에서 12.5%로 2배 이상 증가하였으나 육류의 수출 비중은 9.7%에서 8.3%로 감소함.
 - 곡물의 수출 비중은 2011/12년 28.6%에서 2021/22년 31.8%로 증가함.
- 한편, 식물성엑스와 조제사료의 수출 비중은 2012/13년 기준 각각 12.8%, 9.6%에서 2021/22년 2.4%, 3.9%로 크게 감소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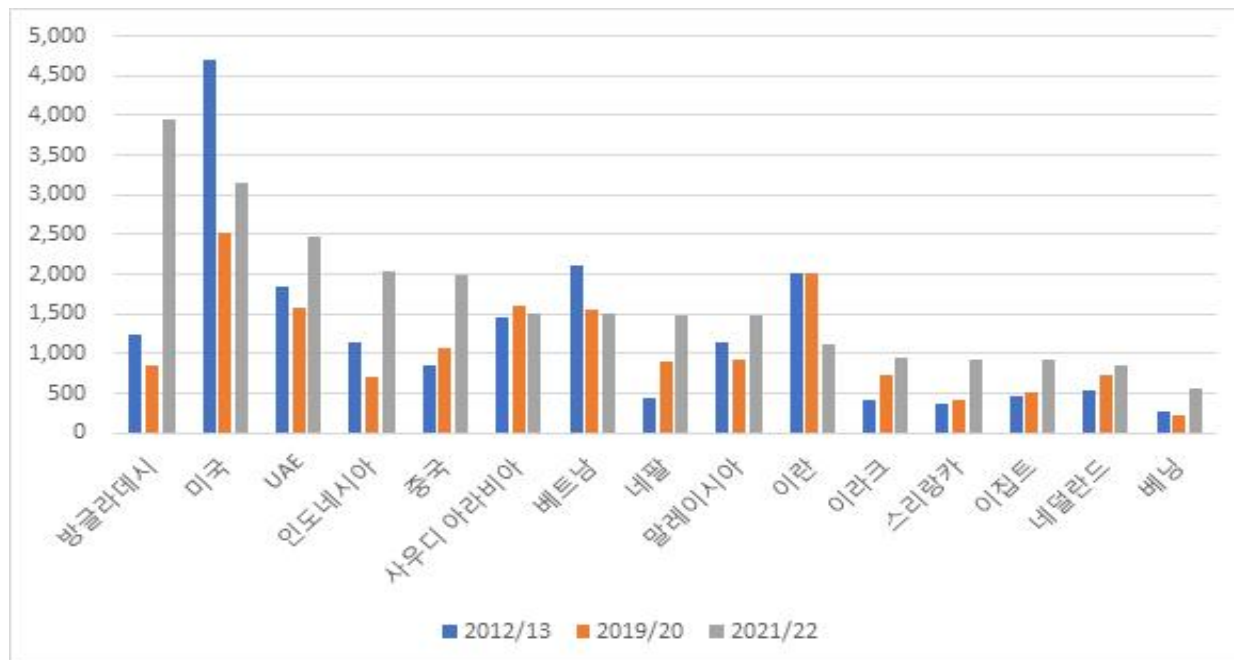
나. 국가별 수출

■ 2021/22년 기준 인도가 농산물 수출을 가장 많이 한 국가는 방글라데시이며, 뒤이어 미국과 UAE가 2위, 3위를 기록하였음.

- 특히 방글라데시로의 수출은 2019/20년(8억 5천만 달러)을 기점으로 464% 증가해 2021/22년 39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 인도의 농산물 수입 1위 국가였던 미국으로의 수출은 2012/13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30억 달러 규모로 전체 순위 2위를 기록함.
- 인도네시아와 중국에 대한 인도 농산물 수출도 증가해 각각 20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 인도 농산물 수출 상위 15개국의 추이를 살펴보면 미국, 베트남, 이란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로의 수출액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사우디아라비아로의 수출 규모는 지난 10년 평균 17억 달러로 상위 5~6위 국가로 나타남.
- 상위 15개국의 대륙별 비중을 보면 아시아국 47%, 중동 33%로 인도와 거리가 가까운 국가들의 비중이 매우 높았음.

그림 4. 인도 농산물 국가별 수출 변화

(단위: 백만 달러)



자료: 인도 상공부 통계(검색일: 2022. 8. 16).

표 4. 인도 농산물 국가별 수출 동향(상위 15개국)

(단위: 백만 달러)

	12/13	13/14	14/15	15/16	16/17	17/18	18/19	19/20	20/21	21/22
방글라데시	1,251	1,780	1,603	826	759	1,537	1,210	850	2,087	3,943
미국	4,690	3,082	2,926	2,100	2,188	2,605	2,631	2,531	2,954	3,150
UAE	1,847	1,799	1,850	1,926	2,029	2,040	1,763	1,591	1,802	2,464
인도네시아	1,132	968	748	362	652	533	889	696	1,442	2,031
중국	862	703	653	538	535	627	775	1,076	1,972	1,989
사우디아라비아	1,446	2,066	2,109	1,713	1,424	1,580	1,636	1,600	1,602	1,509
베트남	2,116	2,600	3,070	2,532	2,893	3,192	2,495	1,554	1,148	1,509
네팔	443	530	723	718	907	954	993	890	1,348	1,484
말레이시아	1,145	1,104	1,068	937	822	804	850	927	1,132	1,473
이란	2,020	3,137	1,657	876	851	1,240	2,137	2,022	1,168	1,117
이라크	420	398	406	540	655	692	667	722	877	951
스리랑카	369	434	677	419	392	541	439	413	609	929
이집트	467	573	618	506	456	408	345	517	522	926
네덜란드	548	631	595	567	558	750	752	739	733	861
베닝	264	506	269	236	280	342	293	211	454	565
합계	19,020	20,311	18,972	14,795	15,400	17,845	17,874	16,338	19,852	24,901

주: 21/22년 수출액을 기준으로 정렬함.

자료: 인도 상공부 통계(검색일: 2022. 8. 16).

글상자 2. 인도 농산물의 한국 수출 동향

■ 2021/22년 기준 인도 농산물의 대한국 수출액은 5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22.8% 증가하였음.

- 수출액은 2019/20년을 기점으로 증가했으며, 같은 해 전체 인도의 농산물 수출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2% 임.
- 수출 상위 5개 품목은 1) 조제사료, 2) 채유용 종자 3) 곡물류, 4) 식물성 수액과 엑스, 5) 당류로 나타났음.
- 인도가 한국으로 가장 많이 수출하는 품목은 조제사료로 1억 7,500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전체 수출의 35%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지난 10년간 인도의 대한국 조제사료 수출 평균액은 1억 6,500만 달러로, 특히 깻묵(oil cake) 수출이 80% 이상을 차지하였음.
- 전년대비 수출이 가장 많이 증가한 품목은 곡물(7,100만 달러)로 558% 증가했고, 한국으로의 농산물 수출에서 14%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됨.
 - 특히 밀 수출이 약 6,990만 달러로 곡물 수출의 98%를 차지하였음.
 - 밀에 이어 많이 수출한 것은 참깨로 2021/22년 5,600만 달러를 기록함.

연도	12/13	13/14	14/15	15/16	16/17	17/18	18/19	19/20	20/21	21/22
수출액 (백만 달러)	793.3	704.4	461.7	369.4	293.0	297.5	344.9	346.7	405.3	497.6
증가율(%)		-11.2	-34.5	-20.0	-20.7	1.5	16.0	0.5	16.9	22.8

자료: 인도 상공부 통계(검색일: 2022. 8. 16).

다. 주요 수출 품목의 국가별 수출

1) 곡물

- 인도 곡물 수출은 쌀, 밀, 옥수수에 집중되어 있으며, 최근 방글라데시와 중국으로의 수출이 대폭 증가하였음.
- 인도의 쌀은 전 세계 170여 개 국가에 수출되었으며, 2021/22년 기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는 이란(9%), 사우디아라비아(7%), 방글라데시(6%)임.
- 인도의 밀은 전 세계 60여 개 국가로 수출되었으며, 2021/22년 기준 방글라데시로의 수출이 전체 밀 수출의 56%를 차지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그 외 스리랑카, UAE,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으로 수출되었으며, 한국에도 약 7천만 달러의 밀을 수출한 것으로 집계되었음.
- 2021/22년 방글라데시로의 곡물 수출은 22억 달러로 인도 곡물 수출의 17% 비중을 차지해 최대 수출국으로 나타났으며, 중국의 경우 전년대비 378% 증가한 5억 원 규모의 수출을 기록함.

표 5. 인도 국가별 곡물 수출액 변화(상위 10개국)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12/13	13/14	14/15	15/16	16/17	17/18	18/19	19/20	20/21	21/22	전년 대비 증가율
1 방글라데시	569.1	924.3	852	279.8	62.0	871.5	301.3	40.6	1004.7	2,246.5	124
2 이란	1247.3	1968.7	1239.7	593.1	570.5	949.7	1584.1	1254.8	599.3	857.7	43
3 사우디아라비아	759.3	1240.1	1240.1	927.0	741.3	908.0	1045.0	1024.2	1067.4	722.6	-32
4 네팔	145.9	189.8	297.9	297.1	346.8	389.3	440.7	399.8	628.2	721.9	15
5 베닝	242.8	488.1	250.9	219.4	253.4	315.9	265.0	197.0	444.5	533.1	20
6 중국	15.59	18.49	5.34	3.35	1.3	0.1	1.1	1.0	104.1	497.6	378
7 UAE	571.8	560.9	581.0	624.6	616.4	595.2	454.8	351.9	414.2	486.7	17
8 이라크	204.9	283.5	283.5	368.2	477.9	485.7	436.0	484.4	644.7	458.4	-29
9 스리랑카	9.2	21.6	327.0	29.2	80.7	215.6	19.5	5.9	28.8	352.2	1,124
10 예멘	360.7	325.3	286.3	161.2	127.8	218.7	260.9	224.9	348.6	337.07	-3
10개국 합계	4,138.59	6,033.79	5,377.74	3,517.95	3,294.1	4,966.7	4,826.4	4,003.5	5,304.5	7,234.77	36
곡물 전체	9,655	10,563	9,551	6,272	6,013	8,152	8,160	6,672	10,104	12,882	27

주: 2022/21년 수출액을 기준으로 정렬

자료: 인도 상공부 통계(검색일: 2022. 8. 16).

표 6. 인도 주요 곡물 수출 동향 2011/12~2021/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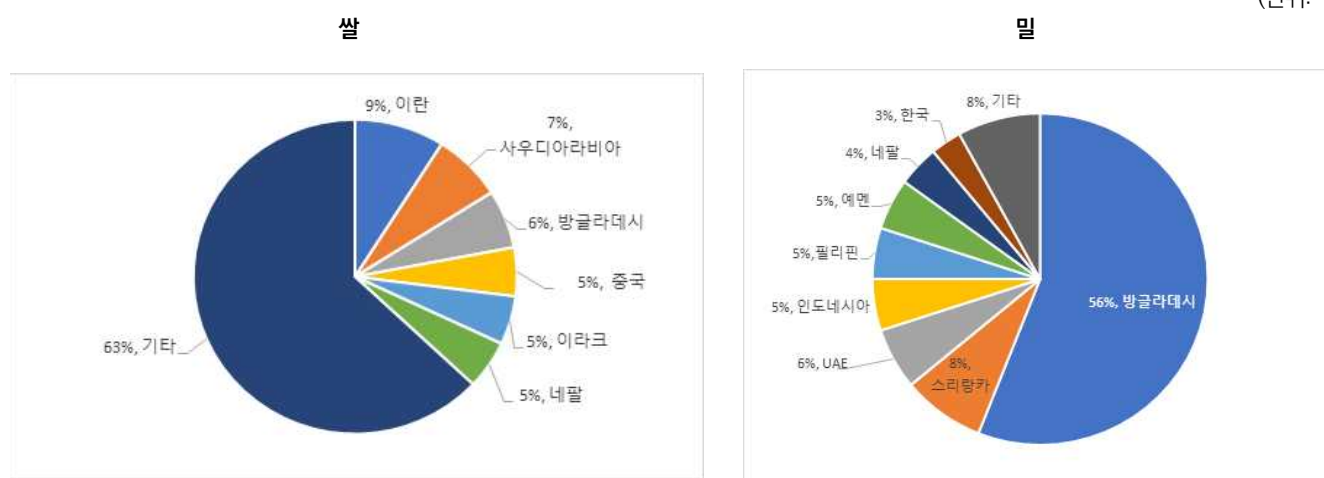
(단위: 백만 달러)

HS 코드	12/13	13/14	14/15	15/16	16/17	17/18	18/19	19/20	20/21	21/22
1001 (밀)	1,934	1,569	829	164	67	97	60	63	568	2,122
1005 (옥수수)	1,305	1,010	667	178	153	191	269	144	646	1,026
1006 (쌀)	6,216	7,790	7,853	5,847	5,734	7,806	7,751	6,403	8,829	9,671
곡물 전체	9,655	10,563	9,551	6,272	6,013	8,152	8,160	6,672	10,104	12,882

자료: 인도 상공부 통계(검색일 2022. 8. 16).

그림 5. 주요 곡물 수출국 비중(2021/22년 기준)

(단위: %)



자료: 인도 상공부 통계(검색일 2022. 8. 16)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2) 당류

■ 2021/22년 기준 인도가 당류를 가장 많이 수출하는 국가는 인도네시아로 전년대비 75% 증가한 9억 달러를 수출함.

- 인도네시아로의 당류 수출은 전체 당류 수출의 약 18%를 차지하며, 두 번째로 큰 수출국인 방글라데시로의 수출은 5억 7천만 규모로 전년대비 650% 증가하였음.
- 아울러 이라크로의 수출도 대폭 증가해 2021/22년 기준 1억 6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대비 54,100% 증가함.
- 인도 당류 수출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주변국, 중동, 아프리카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7. 인도 국가별 당류 및 설탕과자 수출액 변화(상위 10개국)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12/13	13/14	14/15	15/16	16/17	17/18	18/19	19/20	20/21	21/22	전년 대비 증가율
1 인도네시아	0.2	0.7	4.7	4.9	5.4	5.8	11.1	9.2	516.4	904.3	75
2 방글라데시	197.7	12.2	39.7	17.3	3.4	36.7	76.6	147.9	76.3	572.4	650
3 수단	241.4	245.5	212.4	176.7	162.1	209.9	287.6	298.1	381.8	563.7	48
4 UAE	203.2	114.9	105.2	70.2	67.1	105.1	62.2	41.2	124.3	300.7	142
5 소말리아	110.1	86.3	135.7	191.8	186.6	131.6	160.6	244.9	197.3	291.0	47
6 지부티	34.3	17.0	31.9	27.3	104.9	27.7	98.7	96.7	122.4	262.3	114
7 사우디 아라비아	42.6	66.7	43.1	45.5	42.9	34.2	44.2	66.5	33.0	252.5	665
8 말레이시아	65.4	9.6	26.3	13.4	8.5	7.7	37.0	110.7	57.8	206.7	258
9 스리랑카	106.8	131.2	71.6	93.6	37.0	27.6	136.5	156.9	247.2	177.0	-28
10 이라크	141.8	14.9	31.6	17.5	1.1	0.9	0.4	0.3	0.3	162.6	54,100
10개국 합계	1,143.4	699.0	702.2	658.2	619.0	587.1	914.9	1,172.5	1,756.8	3,693.2	110
당류 전체	1,750	1,355	1,075	1,764	1,509	1,019	1,629	2,192	3,150	5,089	62

주: 2022/21년 수출액을 기준으로 정렬.

자료: 인도 상공부(검색일: 2022. 8. 16).

3) 육류

■ 2021/22년 기준 인도 육류 수출의 상위 3개국은 이집트, 베트남, 말레이시아이며, 인도 육류 전체 수출에서 상위 10개국으로의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88.3%임.

- 인도의 육류 수출에서 냉동 쇠고기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21/22년 기준 인도 육류 수출의 약 77%를 기록하였음.
- 인도의 육류 수출 지역은 동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지역 비중이 큰 비중을 차지하며 특히 인도네시아로의 수출액이 2012/13년 2천만 달러에서 2021/22년 3억 달러로 약 80배 증가하였음.
- 반면 과거 인도 육류 수출의 5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한 베트남으로의 수출은 2021/22년을 기점으로 감소됨.

표 8. 인도 국가별 육류 수출액 변화(상위 10개국)

(단위: 백만 달러)

구분	12/13	13/14	14/15	15/16	16/17	17/18	18/19	19/20	20/21	21/22	21/22 냉동 소고기
1 이집트	230.8	338.2	422.3	357.7	302.9	255.6	117.5	335.4	377.8	739.7	714.7
2 베트남	945.2	1,797.5	2,154.9	1,993.3	2,026.4	2,292.4	1,710.2	1,071.7	404.0	487.1	375.5
3 말레이시아	357.4	388.7	423.1	410.1	354.7	370.6	368.6	378.8	383.5	445.2	427
4 인도네시아	2.4	-	0.2	2.4	228.1	95.5	323.3	233.6	305.8	307.5	307
5 이라크	64.9	87.1	66.3	117.4	128.2	156.0	170.5	170.5	149.2	223.4	217.4
6 홍콩	25.1	5.5	1.7	11.3	5.0	36.5	1.8	118.6	860.8	213.2	114.5
7 UAE	159.9	188.9	197.7	186.4	177.2	162.9	180.0	149.5	123.0	164.2	99.7
8 사우디 아라비아	238.6	280.1	301.0	245.2	178.2	145.3	124.8	127.0	109.5	159.0	143.2
9 필리핀	104.6	119.1	115.8	116.4	100.5	117.6	119.7	79.2	95.8	127.4	127.4
10 요르단	138.1	149.7	65.5	52.0	33.1	30.3	28.8	31.5	37.8	66.9	40.2
10개국 합계	2,267	3,354.8	3,748.5	3,492.2	3,534.3	3,662.7	3,145.2	2,695.8	2,847.2	2,933.6	2,567
육류 전체	3,287	4,476	4,929	4,210	4,038	4,175	3,723	3,301	3,223	3,377	2,935

주: 2022/21년 수출액을 기준으로 정렬.

자료: 인도 상공부 통계(검색일: 2022. 8. 16).

3. 농산물 수출의 증가 요인

가. 대외적 요인

- 인도의 농산물 수출이 2019/20년을 기점으로 급증한 배경은 다른 주요 농산물 수출국의 생산량 감소 및 수출 제한 조치로 국제 가격이 상승하자,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 있는 인도 농산물에 대한 대외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이다.¹⁰⁾
- 주산지의 기상 이변으로 인한 농산물 생산량 감소와 코로나19로 인한 공급망 교란이 식량 안보에 대한 위기를 고조시켰으며, 일부 국가는 필수 농산물에 대한 수출규제를 시행함.
 - 이로 인해 쌀, 밀, 설탕과 같은 품목의 교역량이 감소하면서 국제 가격이 상승하였으며, 비축량이 풍부하고 저렴한 가격의 인도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인접국을 중심으로 증가하였음.

10) 대외적 원인 분석은 USDA 온라인 자료 및 언론 자료를 종합적으로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 주요 쌀 수출국인 태국은 가뭄으로 생산량이 감소했으나 내수 증가로 2020년 상반기부터 수출 가격이 상승하고 수출량은 감소했으며, 베트남은 자국의 식량안보를 목적으로 2020년 3월 쌀 수출을 금지하고 같은 해 4월에 40만 톤까지의 수출 할당제를 발표하였음.¹¹⁾

- 반면 인도는 작황 상황이 양호해 쌀 생산량이 증가했고 충분한 재고량을 바탕으로 경쟁력 있는 가격을 형성하게 되었음.

○ 방글라데시는 2020년 세계 3위의 쌀 생산국이나 가뭄 및 홍수에 따른 불안정한 수급에 대비해 쌀 수입을 늘리고 있으며, 특히 인도산 쌀 가격이 저렴하고 지리적 인접성도 높아 대량 구매함.¹²⁾

표 9. 최근 인도, 태국, 베트남의 쌀 생산량 및 재고량

(단위: 백만 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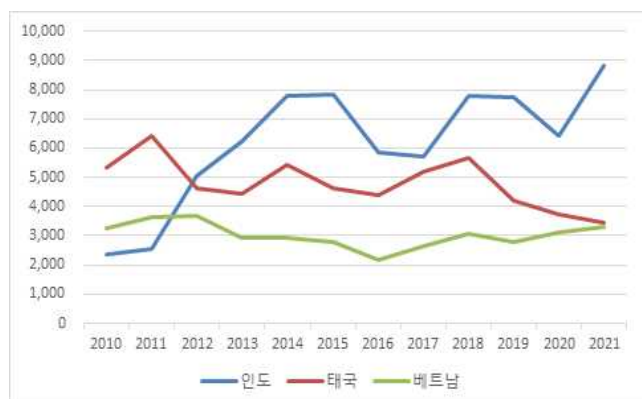
항목	2018/19		2019/20		2020/21	
	생산량	재고량	생산량	재고량	생산량	재고량
인도	116.48	29.50	118.87	29.90	122.00	25.9
태국	20.34	4.08	17.66	3.98	18.83	4.51
베트남	27.34	1.10	27.10	1.18	27.10	1.43

주: 태국과 베트남의 마켓이어(market year)는 1월~12월이며, 인도는 10월~이듬해 9월까지임.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22), p. 9~13을 참고해 작성.

그림 6. 인도, 태국, 베트남 쌀 수출 동향

(단위: 백만 달러)



주: 미국은 주요 쌀 수출국이나 일본, 멕시코를 중심으로 수출하고 있어 본 분석에 제외하였음.

자료: CEIC 통계(검색일: 2022. 8. 16).

그림 7. 인도, 태국, 베트남 백미 수출 가격

(단위: 달러/톤)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22), p.15를 참고해 작성.

11) Reuters(2020. 3. 30), "Vietnam's ban on rice exports still in force, government may set limit: traders,"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2. 8. 30).

12) Maritime Gateway(2021. 7. 29). "Rice Exports To Bangladesh On The Rise,"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2. 9. 5).

- 쌀 수출이 증가한 다른 배경으로는 중국이 2020/21~2021/22년 동안 인도산 쌀 수입을 큰 폭으로 늘렸기 때문이다.
 - 쌀이 주식인 중국은 2020년 7월 양쯔강 유역을 따라 여러 지역이 홍수로 피해를 입게 되었으며, 메뚜기떼 공격 등 이상 기후로 쌀농사에 타격을 받은 것에 더해 코로나19 봉쇄 조치로 수급이 불안정해지자 전략적 비축을 목적으로 인도 쌀을 수입하였음.¹³⁾¹⁴⁾
 - 2017~18년 중국의 평균 쌀 생산량은 2억 1,442만 톤에서 2020년 2억 1,361톤으로 5.6% 감소하였음.¹⁵⁾

그림 8. 인도 쌀 중국 수출 동향

(단위: 백만 달러)



자료: 인도 상공부 통계(검색일: 2022. 8. 16).

- 아울러 인도 동부의 심해 항구인 카키나다(Kakinada Deep Water Port) 항구를 쌀 수출기지로 활용해 대형 선박을 정기적으로 선적할 수 있게 되면서 세네갈 및 베냉, 카보베르데(Cape Verde) 같은 아프리카 국가로 무역도 확대하였음.¹⁶⁾
 - 이를 통해 인도가 태국과 베트남, 파키스탄을 포함한 주요 쌀 수출 경쟁국과의 무역에서 이점을 가지게 되었음.

■ 세계 주요 밀 수출국인 호주, 프랑스, 우크라이나는 2018~19년 가뭄으로 생산이 감소되었고, 러시아는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수급의 불안이 고조되고 식료품 가격이 상승하자 수출을 제한하였음.

-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밀을 수출해온 호주의 경우 2019년 50년 만의 최악의 가뭄으로 생산량이 급감하게 되었으며, 프랑스의 밀 생산량은 2019년 4,060만 톤에서 2020년 3,014만 톤으로 감소함.¹⁷⁾¹⁸⁾
 - 우크라이나도 주요 밀 생산지역의 가뭄으로 2020년 밀 생산량(2,491만 톤)이 13% 감소함.

13) 연합뉴스(2020. 8. 30), 「“메뚜기 떼 피해 상상 이상”...중국서 커지는 식량안보 우려」,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2. 8. 31).

14) CNBC(2020. 12. 17), “Explained: Why is China importing rice from India for the first time in decades?”(검색일: 2022. 8. 31).

15) FAO 통계(검색일: 2022. 9. 5).

16) Economic Times(2021. 2. 4), “India lines up deepwater port for rice, exports to surge amid global shortage,”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2. 8. 31).

17) 아시아투데이(2019. 10. 15), 「‘50년 만에 최악의 가뭄’ 직면한 호주...세계 농산물 시장 혼란 야기할까」,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2. 8. 31).

18) 농민신문(2018. 8. 15), “역대 최악의 가뭄...세계 밀 가격 급등 조짐”,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2. 8. 31).

그림 9. 주요국의 밀 생산량

(단위: 천 톤)



자료: FAO 통계(검색일: 2022. 9. 5).

그림 10. 주요국의 밀 수출량

(단위: 천 톤)



자료: FAO 통계(검색일: 2022. 9. 5).

- 러시아는 밀 국내 수급 확대를 위해 2020년 4월부터 6월까지 곡물 수출을 700만 톤으로 제한했으며, 2021년 12월 밀 800만 톤을 포함해 전체 곡물 1,100만 톤까지만 수출을 허용하는 할당제를 시행하기로 결정함.¹⁹⁾
- 이에 수출량 감소로 국제 밀 가격이 상승하였으며, 상대적으로 인도의 수출 밀 가격이 경쟁력을 갖게 되어 주변국인 방글라데시, 네팔, 스리랑카에서의 수요가 증가하였음.
- 인도의 경우 밀에 대한 최소지원가격(MSP)²⁰⁾을 지속적으로 인상해 농민들이 밀 생산을 확대하면서 전체 생산량이 증가하였으며(2018년 9,987만 톤→2019년 1억 360만 톤), 수출 밀 가격은 톤당 225~335달러로 형성됨.²¹⁾

그림 11. 주요국의 밀 수출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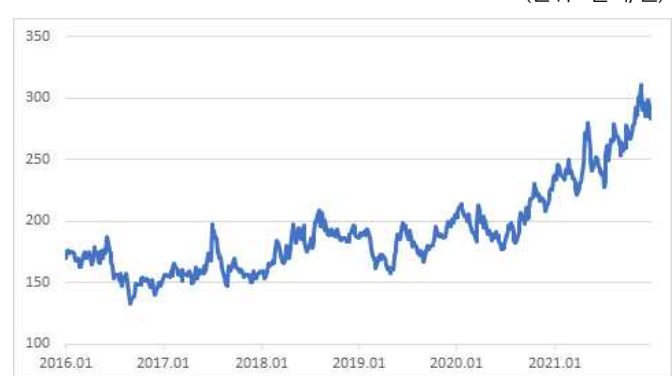
(단위: 달러/톤)



자료: USDA, "India Grain Exports Benefit from Tighter Competitor Supplies and Increased Price Competitivenes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8. 25).

그림 12. 국제 밀 선물가격 동향

(단위: 달러/톤)



자료: 시카고상품거래소(검색일: 2022. 8. 16).

19) Reuters(2021. 12. 18), "Russia says to cut wheat export quota to 8 million tonnes,"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2. 8. 31).

20) MSP(Minimum Support Price)는 정부가 농민으로부터 작물을 사들이는 수매가격으로 이해할 수 있음. 약 20종의 작물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음. 밀 MSP는 2015/16년 키타(quintal)당 1,525루피에서 2017/18년 1,735루피, 2018/19년 1,840루피로 인상되었음. 김도연(2018. 7. 13), 「14가지 주요 작물에 대한 '최소지원가격(MSP)' 인상의 배경 및 시사점」, 동향세미나 14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1) News Click(2022. 5. 24), "Who Benefits From Soaring Wheat Prices in India?"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2. 8. 31).

그림 13. 주요국의 당류 생산량*

(단위: 천 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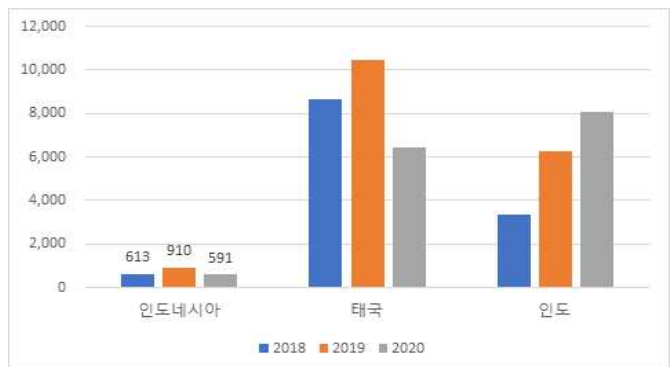


주: *사탕수수 생산량 기준.

자료: FAO 통계(검색일: 2022. 9. 5).

그림 14. 주요국의 당류 수출량*

(단위: 천 톤)



주: *설탕 및 꿀 수출량 기준.

자료: FAO 통계(검색일: 2022. 9. 5).

■ 인도네시아와 방글라데시가 인도 설탕을 대규모 수입함으로써 당류 수출이 증가하였음.

- 인도네시아와 태국이 가뭄으로 당료 작물 생산량이 감소한 반면 인도는 높은 생산성과 비축을 유지해 수출 물량이 충분한 상황이었음.
 - 인도네시아의 당료 작물(사탕수수 등)의 생산량은 2019년 2,931만 톤에서 2020년 2,912로 감소했으며, 태국의 당료 작물 생산량은 2019년 1억 3,100만 톤에서 2020년 7,497만 톤으로 감소함.
- 아울러 세계적인 설탕 수출국인 브라질도 악천후로 설탕 생산이 감소해 2021년 사탕수수 생산량이 12년래 최저치인 약 6억 6,510만 톤으로 전망됨에 따라²²⁾ 국제 설탕 가격도 상승했으며, 인도네시아는 국내 설탕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설탕 수입 관세를 5% 인하하고 정제 기준을 완화해 인도산 설탕을 수입하였음.²³⁾
 - FAO 국제 식품가격지수에 따르면, 설탕의 경우 2019년 79.1에서 2021년 108.8로 상승함.²⁴⁾ 방글라데시도 높은 운임 및 물류비 등을 고려해 인접국인 인도의 설탕 수입을 증가한 것으로 분석됨.²⁵⁾

나. 대내적 요인

■ 최근 인도 농산물 수출이 증가한 대내적 배경으로는 2018 농산물 수출 장려 정책(AEP)을 바탕으로한 '수출 클러스터 조성', '운송 및 유통 인프라 강화'와 같은 조치가 종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²⁶⁾²⁷⁾

22) Sugar Asia(2021. 10. 3), "Significant Drop in Brazil's Sugarcane Production due to Droughts,"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2. 8. 31).

23) Times of India(2020. 2. 19), "Indian sugar shippers target 'golden opportunity' in Indonesia,"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2. 8. 31).

24) 2014-2016=100, FAO 통계(2022. 9. 5).

25) Daily Star(2022. 4. 18), "Bangladesh 2nd highest importer of Indian sugar,"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2. 8. 31).

26) 농업은 인도의 핵심 산업으로 모디 정부는 농가 소득 증대와 농업 기술 및 인프라 현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이를 위해 주요 작물의 최저지원가격(MSP)을 지속 인상하고, 모든 농민을 대상으로 6천 루피를 지원하는 정책인 PM KISAN(Pradhan Mantri Kisan Samman Nidhi), 농민 철도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고 있음.

27) 대내적 요인은 인도 상공부 보도 자료를 주 자료로 참고해 작성하였음. 인도 상공부(2021. 1. 10) "India registered excellent growth in Agriculture Exports during 2020-21," <https://pib.gov.in/Pressreleaseshare.aspx?PRID=1725891>, 온라인 보도자료(검색일: 2022. 8. 10).

글상자 3. 2018 인도 농산물 수출 장려 정책 주요 내용

- 인도정부는 2018년 12월 농산물 수출에 특화된 정책(Agriculture Export Policy 2018, AEP)을 수립하고 ‘인도의 농산물 수출 품목 다양화’, ‘수출 대상국 확대’, ‘고부가가치 농산물 수출 장려’를 추진하고 있음.
- 이 정책은 현재 곡물, 육류 중심의 수출 외에도 유기농 제품을 포함한 신제품을 개발해 수출 품목을 다변화하고 인도 농산물의 위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구조를 구축하여 세계 농산물 수출에서 인도의 비중을 2배 확대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음.
- 마하라슈트라(Maharashtra), 우타르프라데시(Uttar Pradesh), 케랄라(Kerala), 나갈랜드(Nagaland) 등 총 18개 주와 2개의 연방직할지 정부는 해당 정책에 관한 주별 실행 계획(Action plan)을 수립했으며, 중앙정부 위원회와 소통하며 진행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있음.
- 이를 통해 농민들에게 해외 시장에 수출할 기회를 제공하여 농민 소득을 높이는 한편, 인도를 농업분야의 세계적 강국으로 성장시키고자 함.

자료: 인도 상공부(2018), “Agri Export Policym,” <https://pib.gov.in/Pressreleaseshare.aspx?PRID=1697017>, 온라인 보도자료(검색일: 2022. 8. 10).

- 인도 전역에 40여 개의 농산물 수출 클러스터가 조성되었으며, 현대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수출 창구를 일원화 해 기존에 수출되지 않았던 신선 제품 및 지역 특산물이 미국, 유럽,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수출되었음.
- 인도 중앙 정부가 클러스터 구축 및 개발에 집적 참여함으로써 교통 및 물류 문제가 상당 부분 해결되었으며, 상공부 산하에 수출제품부(Export Products Division)를 신설하고 수출 장려 방안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음.
- 아울러 인도 상공부는 농가공식품수출청(APEDA)에 ‘Farmer Connect 포털’을 구축해 수출업자와 농민생산자 조합(FPO)²⁸⁾이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함.²⁹⁾
- 수출 클러스터를 통해 망고, 바나나와 같은 신선제품뿐만 아니라 기능식품, 약초 등의 인도 농산물이 중동, EU, 동남아, 한국 등으로 수출되는 성과로 이어짐.
- 안드라 프라데시(Andhra Pradesh)의 크리슈나 및 치투르(Krishna & Chittoor) 지역 망고가 2021년 5월 한국으로 수출됨.
- 타밀나두의 콤바코남(Kumbakonam) 지역의 모링가(Moringa) 잎 분말이 호주, 베트남 및 예멘 등으로 수출되었음.
- 아쌈(Assam) 브라마푸트라(Brahmaputra) 지역에서 재배된 앵미(red rice) 40톤이 미국에 수출됨.
- 우타라칸드(Uttarkhand)의 히말라야산 비정제 설탕(Jaggery)이 덴마크로 수출됨.

28) Farmer Producer Organization.

29) <https://farmerconnect.apeda.gov.in/>.

표 10. 인도 농산물 수출 클러스터별 주요 성과

지역 클러스터	주요 성과
바라나시(Varanasi)	신선 야채(풋고추, 조롱박, 완두콩, 오이) 48톤, 망고 10톤, 흑미 532톤을 수출
아난트푸르(Ananthpur)	2021년 1월~4월까지 약 3만 291톤의 바나나가 중동 지역으로 수출
나그푸르(Nagpur)	오렌지 115톤 및 앰비야 바르(Ambiya bahar) 겨울 시즌 오렌지 45톤이 해상을 통해 중동 국가로 처음 수출되었으며, Lulu Super mart, Safari Mall, Nesto 등 현재 중대형 슈퍼마켓에 공급
럭크나우(Lucknow)	망고(Dasheri종, Langra종) 80톤 중동 국가로 수출
테니(Theni)	Cavendish종 바나나 2,400톤과 G9 & Nendran종 바나나 1,560만 kg 바나나 수출
크리슈나, 치투르(Krishna & Chittoor)	Banganapalli(GI 인증) 및 Survarnarekha 망고가 한국으로 수출
텔랑가나(Telangana)	신선한 망고 100톤이 EU, 영국, 중동으로 수출
카르나타카(Karnataka)	약 7,000톤의 장미 및 양파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로 수출
나시크(Nasik)	2020/21년 동안 포도 약 9만 1,762톤이 6,797개의 컨테이너를 통해 EU지역으로 수출

주: 수출량은 2021년 6월까지를 기준으로 함

자료: 인도 상공부(2021. 1. 10), "India registered excellent growth in Agriculture Exports during 2020-21," 온라인 보도자료(검색일: 2022. 8. 29).

■ 인도정부는 많은 영세농민들이³⁰⁾ 소량 제품 거래에 대한 운송업계의 거부 및 낙후된 도로 인프라로 인해 원거리 시장으로의 접근이 어렵고 수익 창출도 제한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민관합작투자(PPP) 형태의 농민철도(Kisan Rail)를 구축하였음.³¹⁾

- 농민 철도(Kisan Rail)는 인도의 거대한 철도 인프라를 활용해 농민과 수출업자들이 원거리 지역으로부터 시장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급행 및 화물 열차에 냉장 시설을 구축해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임.
 - 인도 식품가공업부가 물류 비용의 50%를 지원하고 이용자가 예약을 통해 생산물을 배송할 수 있게 하는 구조임.
 - 2020년 8월 해당 제도를 운영하기 시작했으며, 같은 해 8월 1,005톤(5건)의 실적이 발생한 이후 지속 증가해 2021년 1월에는 3만 2,303톤(80건)의 실적을 기록하였음.³²⁾

■ 아울러 인도정부는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 세계 여러 나라와 온라인 회의를 개최하여 인도 농산물 수출 계약을 성사시켰음.

- APEDA는 2021년 3월에 온라인 곡물 무역 박람회를 개최했으며, 5월에는 온라인 원예 무역 박람회를 개최하

30) 인도 국가표본조사국에 따르면, 인도 농민 중 70% 이상이 1헥타르 미만의 토지를 소유한 영세농으로 집계되었음. Economic Times(2015. 12. 19), "70% of agricultural households own less than 1 hectare land: Survey,"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2. 9. 5).

31) Ministry of Railway Board, https://indianrailways.gov.in/railwayboard/uploads/directorate/secretary_branches/IR_Reforms/Kisan%20Rail%20-%20A%20Boon%20for%20Farmers.pdf(검색일: 2022. 8. 10).

32) Ibid, p. 5.

여 쌀, 기장, 옥수수, 땅콩, 채소, 과일 등을 전시하였음.

- 박람회 기간 동안 UAE,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인도네시아, 스위스, 벨기에, 캐나다, 호주, 나이지리아, 브루나이로부터 500여 개가 넘는 수입업체가 참여하였음.

■ 이 외에도 대사관을 활용해 수출 지역 시장 정보를 수집하고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고 있음.

- APEDA는 해외 시장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13개 국가 대사관에 농업 관련 셀을 배치하고 해당 셀로부터 입수한 정보를 바탕으로 농업 수출 증대를 위한 전략을 모색함.
 - 해당 국가는 방글라데시, 베트남, 미국, 중국, 이란, 말레이시아, 일본, 네팔,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싱가포르임.³³⁾
- 아울러 중동으로의 농산물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인도정부는 국별 농산물 수출 전략을 마련하고 있음.
 - 2020년 5월에 UAE, 오만, 바레인, 쿠웨이트,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및 이란으로의 수출 확대를 위한 전략 회의가 인도 대사관 주최로 개최되었음.

4. 요약 및 시사점

■ 2019/2020년을 기점으로 인도 농산물 수출이 증가한 주요 배경은 다른 주요 농산물 수출국의 생산량 감소 및 수출 제한으로 국제 가격이 상승하자 생산량이 풍부하고 가격이 저렴한 인도 농산물에 대한 대외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임.

- 특히 밀과 쌀을 포함한 곡물 수출이 대폭 증가해 2021/22년 인도 곡물 수출은 129억 달러 규모로 전년대비 93% 증가했으며, 설탕 수출도 큰 폭으로 증가해 2021/22년 기준 당류 수출은 51억 달러 규모로 전년대비 132% 증가함
- 중국, EU, 러시아, 브라질, 태국 등 곡물의 세계 주요 수출국 생산량이 감소한 것은 가뭄, 홍수 등 기상 이변이 주요 원인이었음.
 -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공급망 대란으로 전 세계적으로 식량 안보에 대한 우려가 커져 수출제한 조치가 시행되어 교역량도 감소하였음.
- 반면 인도의 경우 정부의 최소지원가격(MSP) 인상으로 인해 주요 작물을 재배하는 농민이 증가하고 작황 상황도 양호해 충분한 재고량을 바탕으로 경쟁력 있는 수출 가격을 형성하게 되었음.
- 이에 저렴한 가격과 인접성을 바탕으로 방글라데시와 스리랑카와 같은 주변국을 포함해 중국, 인도네시아로의 수출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됨.

33) APEDA의 온라인 자료를 참고해 작성함. https://apeda.gov.in/apedawebsite/Announcements/Details_of_Agri-Cells_created_Indian_Embassy_Abroad.pdf(검색일: 2022.8.20.)

■ 아울러 인도정부는 2018년 농산물 수출을 특화한 정책(AEP)을 발표했으며, 해당 정책을 바탕으로 △수출 클러스터 조성 △물류 인프라 개선 △신제품 개발 등을 추진한 것도 인도 농산물 수출 증가의 대내적인 원인으로 분석됨.

- 수출 클러스터를 통해 다양한 인도 농산물이 세계로 수출되고 있으며, 신선제품뿐만 아니라 기능성 식품 수출도 증가하고 있음.
- 국가별 농산물 수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해외 인도 대사관 내 농업 셀을 배치하였으며, 인도 농산물의 주요 수출국인 중동에 특화한 수출 전략도 모색하였음.
- 아울러 인도정부는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 세계 여러 나라와 온라인 회의를 개최하여 농산물 수출 계약을 성사시켰음.

■ 향후 인도의 농산물 수출은 세계 주요 밀 생산국의 생산량과 수출 환경이 회복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종전과 같은 곡물 중심의 대외수요는 다소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나, 자국 농산물의 품목을 다양화하고 수출 저변을 확대하는 정책을 지속 추진할 것으로 보임.

- 2022년 8월 FAO는 세계 식량가격지수가 5월 연속으로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으며, 곡물, 설탕, 유지류, 육류, 유제품 항목 가격이 모두 하락했다고 발표함.³⁴⁾
 - 밀 가격의 경우에는 러시아, 미국, 캐나다와 같은 주요 수출국의 생산이 양호할 전망이며 우크라이나 흑해 항구에서 밀 수출이 재개되어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분석함.
 - 설탕 가격이 내린 주요 배경은 브라질 에탄올 가격이 하락하고 인도가 설탕 수출규제를 완화했기 때문임.³⁵⁾
- 인도 APEDA는 화학 잔류물이 없는 생산 시스템 개발, 인증 촉진 농산물 가공 및 협동조합 역량 개발 등을 위해 다양한 기관과 협력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음.³⁶⁾

■ 한편, 인도정부는 주요 농작물의 수급이 불안해질 경우 즉각적인 수출 금지 혹은 제한 조치를 시행해 자국의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있으므로, 인도와의 농산물 교역을 확대할 경우 현지의 수출 환경을 포함한 특수성을 고려해 수입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음.

- 인도는 풍부한 농업 인력과 다양한 기후를 바탕으로 곡물, 육류, 채소, 유제품 생산량이 세계 최대 규모인 반면 2021년 세계식량안보 지수는 세계 113개 중 71번째를 기록했으며,³⁷⁾ 세계기아지수는 116개 국가 중 101위로 방글라데시 및 파키스탄보다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³⁸⁾

34) 농림축산식품부(2022. 9. 3), 「식량농업기구(FAO) 세계식량가격지수 전월 대비 1.9% 하락」, 온라인 보도자료(검색일: 2022. 9. 5).

35) 인도는 지난 5월 식량 안보를 이유로 설탕 수출을 제한했으나 높은 생산량으로 국내 가격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출을 다시 허용하였음. Economic times(2022. 8. 5), "India to raise sugar export cap this year amid high production: ship 1.2 mln tonnes of additional sweetener,"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2. 9. 5).

36) Ministry of Commerce & Industry (2021. 8. 4), "APEDA inks MoU with University of Agricultural Science, Bangalore for boosting agri-exports," 온라인 보도자료(검색일: 2022. 9. 15).

37) 순위가 높을수록 안정적이라는 뜻임. Global Security Index, <https://impact.economist.com/sustainability/project/food-security-index/Index> (검색일: 2022. 9. 5).

38) Global Hunger Index, <https://www.globalhungerindex.org/india.html> (검색일: 2022. 9. 5).

- 이에 인도정부는 1960년 구축한 공공배급시스템(PDS: Public Distribution System)을 통해 밀, 쌀, 설탕, 등유를 필수 품목으로 지정하고 빈곤층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음.³⁹⁾
- 인도정부는 주요 농산물의 수급이 불안정해질 경우 필수 식품을 대상으로 자국 식량안보를 강조하며 즉각적인 수출 금지 혹은 제한 조치를 해왔고, 향후에도 시행할 가능성이 있음.
- 2022년 5월 밀 수출 금지⁴⁰⁾ 조치 이후 밀가루 수출이 증가해 국내 밀가루 가격이 상승하자 인도정부는 시장 안정화를 위하여 2022년 8월 25일 밀가루 수출을 금지함.⁴¹⁾
- 특히 곡물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조달 및 비축 관리를 하고 있으므로 인도와의 교역 확대 시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한 수입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우리 정부는 안정적인 식량 공급을 위하여 자급률 제고와 해외 수입선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상황으로, 인도와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 및 ODA를 활용한 중장기적 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망 구축을 추진해 볼 수 있음.

-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곡물 자급률은 20.2%로,⁴²⁾ 인도산 농산물 수입 품목도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 2021년 기준 우리나라가 인도로부터 수입한 농산물은 대두분, 옥수수가루, 밀가루 천일염, 당밀, 참깨, 깻묵, 면 실피, 잼 등이 있음.⁴³⁾
- 우리나라의 발전된 농업기술을 인도의 풍부한 인적자원 및 자연환경에 접목시킨 현지 맞춤형 농업 협력을 인도와 양국 정부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인도에 한-인도 식품산업 단지를 조성해 장기적인 식량 공급처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음.
- 식품 수입 의존도가 높은 UAE는 인도 내 통합 식품 단지(Food park) 조성에 20억 달러를 투자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식량 수급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였음.⁴⁴⁾
- 2022년 7월 인도, 이스라엘, UAE, 미국의 정상회담을 통해 논의된 사안으로, 미국과 이스라엘은 첨단 농업 기술을 제공해 생산량을 극대화함으로써 남아시아 및 중동의 식량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인도는 토지를 제공하고 농민 인력을 투입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농민의 소득 안정화와 농산물 수출 증대도 기대하고 있음. KIEP

39) 「2013 인도 국가 식량안보법(2013 National Food Security)」에 따라 농촌인구의 최대 75%, 도시 인구의 최대 50%가 PDS 지원 대상에 포함됨. National Food Security Portal, https://nfsa.gov.in/portal/PDS_page(검색일: 2022. 9. 5).

40) 인도정부는 상업적 밀 수출은 금지했으나 인도의 대외외교 정책인 '주변국 우선 정책'에 해당하는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등 이웃 국가로 한정해 밀을 수출을 허용하였음.

41) 2021/22년 4~6월 밀가루(HS코드 1101) 수출액은 4,000만 달러였으나 2022/23년 4~6월에는 1억 2,700만 달러로 127.8% 증가하였음. CCEA(2022. 8. 25), "Cabinet approves amendment to export policy for Wheat or Meslin Flour," 온라인 보도자료(검색일: 2022. 9. 5).

42) 우리나라 밀 자급률의 경우, 2015년 1.2%에서 2019년 0.7%를 기록함. 농림축산식품부(2022. 7. 19),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민·관 협력 방안 논의」, 온라인 보도자료(검색일: 2022. 9. 5).

43) 농식품수출정보 통계, <https://www.kati.net/statistics/monthlyPerformanceByNation.do>(검색일: 2022. 9. 15).

44) Ministry of External Affairs(2022. 7. 14) "Joint Statement of the Leaders of India, Israel, United Arab Emirates, and the United States (I2U2)," 온라인 보도자료(검색일: 2022. 9. 7).

참고문헌

[국문자료]

- 김도연. 2018. 「14가지 주요 작물에 대한 ‘최소지원가(MSP)’ 인상의 배경 및 시사점」 KIEP 지역연구 동향세미나 발표자료 (7월 14일)
- 쇼젠지 신이치. 2015. 『농업과 인간 식과 농의 미래를 생각한다.』 아카데미프레스. 번역: 김경우, 박명섭, 박지문
- 원지은. 2019. 『인도의 농업·농정 현황 및 과제』 국가별 농업자료. 농촌경제연구원.
- 최성천, 김준기, 양지아. 2022. 『통계로 본 세계 속의 한국 농업』. 기타연구보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22년 1월 국제 쌀 시장 동향.

[영문자료]

- WTO. 2020. TRENDS IN WORLD AGRICULTURAL TRADE - 25 YEARS OF THE AGREEMENT ON AGRICULTURE.

[인터넷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22. 7. 19).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민·관 협력 방안 논의」. https://www.mafra.go.kr/sn3hcv_v2022/skin/doc.html?fn=34092AA7-24D8-D80B-FD9F-B641E4CE03C1.hwp&rs=/sn3hcv_v2022/atcmnfl/bbs/202209/(검색일: 2022. 9. 5).
- _____. (2022. 9. 3). 「식량농업기구(FAO) 세계식량가격지수 전월 대비 1.9% 하락」.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519902>(검색일: 2022. 9. 5).
- 농민신문(2018. 8. 15). 「역대 최악의 가뭄…세계 밀 가격 급등 조짐」. <https://www.nongmin.com/news/NEWS/ECO/WLD/296421/view>(검색일: 2022. 8. 31).
- 아시아투데이(2019. 10. 15). 「50년만에 최악의 가뭄 직면한 호주…세계 농산물 시장 혼란 야기할까」.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191015010008217>(검색일: 2022. 8. 31).
- 연합뉴스(2020. 8. 30). 「메뚜기 떼 피해 상상 이상…중국서 커지는 식량안보 우려」. <https://www.yna.co.kr/view/AKR20200830026900089>(검색일: 2022. 8. 31).
- _____. (2022. 5. 14). 「인도 밀 수출금지 촉각…밀가격 상승으로 국내 식품물가 부담 커질 듯」. <https://www.yna.co.kr/view/AKR20220514046500003>(검색일: 2022. 8. 15).
- 한국경제(2022. 5. 17). 「곡물자급률 20%도 곧 깨진다…위태로운 韓 ‘식량안보」」.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2051723031>(검색일: 2022. 9. 5).
- APEDA. https://apeda.gov.in/apedawebsite/Announcements/Details_of_Agri-Cells_created_Indian_Embassy_Abroad.pdf(검색일: 2022. 8. 20).
- CCEA(2022. 8. 25). “Cabinet approves amendment to export policy for Wheat or Meslin Flour.” <https://pib.gov.in/PressReleasePage.aspx?PRID=1854352>(검색일: 2022. 9. 5).
- CNBC(2020. 12. 17). “Explained: Why is China importing rice from India for the first time in decades?”

<https://www.cnbc18.com/world/explained-why-is-china-importing-rice-from-india-for-the-first-time-in-decades-7757601.htm>(검색일: 2022. 8. 31).

Daily Star(2022. 4. 18). “Bangladesh 2nd highest importer of Indian sugar.” <https://www.thedailystar.net/business/news/bangladesh-2nd-highest-importer-indian-sugar-3007186>(검색일: 2022. 8. 31).

Economic times(2022. 8. 5). “India to raise sugar export cap this year amid high production; ship 1.2 mln tonnes of additional sweetener.” <https://economictimes.indiatimes.com/news/economy/policy/india-to-relax-sugar-export-quota-for-2021-22-allow-1-2-mn-ton-more-shipments/articleshow/93370384.cms?from=mdr>(검색일: 2022. 9. 5).

Economic Times(2021. 2. 4). “India lines up deepwater port for rice, exports to surge amid global shortage.” <https://economictimes.indiatimes.com/news/economy/foreign-trade/india-lines-up-deepwater-port-for-rice-exports-to-surge-amid-global-shortage/articleshow/80685572.cms?from=mdr>(검색일: 2022. 8. 31).

_____.(2022. 8. 5). “India to raise sugar export cap this year amid high production; ship 1.2 mln tonnes of additional sweetener.” <https://economictimes.indiatimes.com/news/economy/policy/india-to-relax-sugar-export-quota-for-2021-22-allow-1-2-mn-ton-more-shipments/articleshow/93370384.cms?from=mdr>(검색일: 2022. 9. 5).

Food navigator(2020. 3. 16). “Sugar barter: Indonesia recedes rules for Indian imports to sweeten palm oil trade.” <https://www.foodnavigator-asia.com/Article/2020/03/16/Sugar-barter-Indonesia-reduces-rules-for-Indian-imports-to-sweeten-palm-oil-trade>(검색일: 2022. 9. 5).

Ministry of Commerce & Industry(2021. 1. 10). “India registered excellent growth in Agriculture Exports during 2020-21.” <https://pib.gov.in/Pressreleaseshare.aspx?PRID=1725891>(검색일: 2022. 8. 10).

_____.(2021. 2. 11). “Agri Export Policy.” <https://pib.gov.in/Pressreleaseshare.aspx?PRID=1697017>(검색일: 2022. 8. 10).

_____.(2021. 8. 4). “APEDA inks MoU with University of Agricultural Science, Bangalore for boosting agri-exports.” <https://pib.gov.in/PressReleasePage.aspx?PRID=1742285>(검색일: 2022. 9. 15).

_____.(2022. 5. 13). “Amendment in the Export Policy of Wheat.” <https://content.dgft.gov.in/Website/dgftprod/9032ac12-29a8-4a67-8e3b-bd0dc07c39a5/Noti%2006%20Eng.pdf>(검색일: 2022. 8. 18).

_____.(2022. 4. 6). “India’s Agriculture Exports touch a historic high of USD 50 billion.” <https://www.pib.gov.in/PressReleasePage.aspx?PRID=1814057>(검색일: 2022. 8. 5).

Economic Times(2015. 12. 19). “70% of agricultural households own less than 1 hectare land: Survey.” <https://economictimes.indiatimes.com/news/economy/agriculture/70-of-agricultural-households-own-less-than-1-hectare-land-survey/articleshow/50241024.cms?from=mdr>(검색일: 2022. 9. 5).

_____.(2021. 2. 4). “India lines up deepwater port for rice, exports to surge amid global shortage.”(검색일: 2022. 8. 31).

Hindustan Times(2022. 4. 12). “‘India ready to supply food stocks to world if WTO permits’: PM Modi.” <https://www.hindustantimes.com/india-news/pm-modi-says-india-ready-to-supply-food-stocks-to-world-if-wto-permits-101649752842307.html>(검색일: 2022. 8. 15).

Maritime Gateway(2021. 7. 29). “Rice Exports To Bangladesh On The Rise.” <https://www.maritimegateway.com/rice-exports-to-bangladesh-on-the-rise/>(검색일: 2022. 9. 5).

- Ministry of Commerce & Industry(2021. 8. 4). “APEDA inks MoU with University of Agricultural Science, Bangalore for boosting agri-exports.” <https://commerce.gov.in/press-releases/apeda-inks-mou-with-university-of-agricultural-science-bangalore-for-boosting-agri-exports/>(검색일: 2022. 9. 15).
- Ministry of External Affairs(2022. 7. 14). “Joint Statement of the Leaders of India, Israel, United Arab Emirates, and the United States (I2U2).” https://mea.gov.in/bilateral-documents.htm?dtl/35492/Joint_Statement_of_the_Leaders_of_India_Israel_United_Arab_Emirates_and_the_United_States_I2U2(검색일: 2022. 9. 7).
- Ministry of Railway Board. https://indianrailways.gov.in/railwayboard/uploads/directorate/secretary_branches/IR_Reforms/Kisan%20Rail%20-%20A%20Boon%20for%20Farmers.pdf(검색일: 2022. 8. 10).
- National Food Security Portal. https://nfsa.gov.in/portal/PDS_page(검색일: 2022. 9. 5).
- News Click(2022. 5. 24). “Who Benefits From Soaring Wheat Prices in India?” <https://www.newsclick.in/Who-Benefits-From-Soaring-Wheat-Prices-India>(검색일: 2022. 8. 31).
- Reuters(2020. 3. 30). “Vietnam’s ban on rice exports still in force, government may set limit: traders.” <https://www.reuters.com/article/us-health-coronavirus-vietnam-rice-idUSKBN21H0GO>(검색일: 2022. 8. 30).
- _____.(2021. 12. 18). “Russia says to cut wheat export quota to 8 million tonnes.” <https://www.reuters.com/markets/europe/russia-says-cut-wheat-export-quota-8-million-tonnes-2021-12-17/>(검색일: 2022.8. 31).
- _____.(2022. 7. 14). “UAE invests \$2 bln in hi-tech Indian crop-growing ‘food parks’ to ease shortages.” <https://www.reuters.com/world/uae-announces-2-billion-investment-india-food-parks-2022-07-14/>(검색일: 2022. 9. 13).
- S&P Global(2022. 5. 14). “India bans wheat exports, adding to global supply crunch.” <https://www.spglobal.com/commodityinsights/en/market-insights/latest-news/agriculture/051422-india-bans-wheat-exports-adding-to-global-supply-crunch>(검색일: 2022. 8. 15).
- Sugar Asia(2021. 10. 3). “Significant Drop in Brazil’s Sugarcane Production due to Droughts.” <http://sugar-asia.com/significant-drop-in-brazils-sugarcane-production-due-to-droughts/>(검색일: 2022. 8. 31).
- Times of India(2020. 2. 19). “Indian sugar shippers target ‘golden opportunity’ in Indonesia.” <https://timesofindia.indiatimes.com/business/india-business/india-sugar-shippers-target-golden-opportunity-in-indonesia/articleshow/74207680.cms>(검색일: 2022. 8. 31).
- USDA(2021. 8. 5). “India Grain Exports Benefit from Tighter Competitor Supplies and Increased Price Competitiveness.” <https://www.fas.usda.gov/data/india-grain-exports-benefit-tighter-competitor-supplies-and-increased-price-competitiveness>(검색일: 2022. 8. 25).

[통계 자료]

- 농식품수출정보 통계. <https://www.kati.net/statistics/monthlyPerformanceByNation.do>(검색일: 2022. 9. 15).
- 인도 상공부 통계(Ministry of Commerce & Industry). <https://tradestat.commerce.gov.in/eidb/default.asp>(검색일: 2022. 8. 16).
- 시카고상품거래소 통계(CBOT). https://www.koreapds.com/mipds/kp_main/main.php(검색일: 2022. 8. 16).
- 인도 농가공식품수출청 통계(APEDA). <https://agriexchange.apeda.gov.in/index/exportstatement.aspx>(검색일: 2022. 8. 16).

FAO 통계. <https://www.fao.org/faostat/en/#home>(검색일: 2022. 8. 16; 9. 5; 9. 13).

CEIC DB(검색일: 2022. 8. 16).

Global Security Index. <https://impact.economist.com/sustainability/project/food-security-index/Index>(검색일: 2022. 9. 5).

Global Hunger Index. <https://www.globalhungerindex.org/india.html>(검색일: 2022. 9. 5).

National Food Security Portal. https://nfsa.gov.in/portal/PDS_page(검색일: 2022. 9. 5).

World Bank 통계(2022. 8. 16).